

#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9(완)

##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 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차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전원도시의 전통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07_표준화	
08_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흐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장'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 공간의 개방성 : 고층화

네덜란드에서 지어진 대부분의 고층건축은 해외에서 도입된 건축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지반이 무르다는 점과 산업화의 지연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고층건축의 발전은 뉴욕과 시카고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경제적인 구조와 사회적 요구의 형태로 나타난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집합주택에 엘리베이터를 도입함으로써 다층화 건축(multi-story building)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의견은 네덜란드에서보다는 해외에서 특히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다른 나라보다 고층화가 늦어졌지만 네덜란드가 남긴 중요한 업적으로 뷔드벨드(H.Th. Wijdeveld)와 듀이커(Duiker)가 제안한 고층건축계획안과 1934년 로테르담에 건설된 베르호폴더(Bergpolder) 고층집합주택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고층건축에 대한 이념적 전개 기술, 주택, 자연과의 관계성, 그리고 건축형식에 대한 상징적 가치 등 이미 논의된 다양한 이념과 관련하여 기능주의 이념에 관한 몇 가지의 낭만적 기원을 찾고자 한다.

### 미국의 이미지

미국의 고층건축에 대한 관심은 1890년 경보다 조금 앞서 유럽을 통하여 전해졌다. 네덜란드에서 발행되는 전문잡지와 일간지의 수는 극히 적었지만 가장 새롭고 수준 높은 미국의 고층건축의 발전에 대한 경이로움을 소개하고 있다.

1920년 말까지 미국을 여행하는 유럽의 건축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도시

발간이라든가 사진촬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를라헤는 1911년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가장 선구자적인 네덜란드 건축가였다.

1906년 6월, 루이스 설리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건축가 윌리엄 그레이 퍼셀(William Gray Purcell)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베를라헤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퍼셀은 설리번과 라이트의 건축에 관하여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베를라헤는 설리번과 라이트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건축철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sup>1)</sup>

1911년 베를라헤는 시카고에 있는 퍼셀 사무실을 방문하고 설리번을 만나 하룻밤을 지냈다. 그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후에는 미국여행에 관한 내용을 잡지 등에 기고하고, 여러 군데서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내용의 대부분은 시카고의 고층건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현대건축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다. 베를라헤는 설리번의 영향을 받았으며<sup>2)</sup>, 이는 1914년 런던에 지은 네덜란드 집(Holland House)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활동한 다른 건축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설리번에 대한 베를라헤의 높은 평가에 대해 다른 건축가들은 고층건축에 적합한 수직적 표현의 모색이라는 미학적 접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오히려 베를라헤 자신은 자신의 작업에 고층집합주택의 이념을 결코 적용하지는 않았다. 베를라헤에 있어서 라이트의 영향은 유럽의 건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던 고층건축의 미학적 측면보다 더 상위의 이념이었다. 왜

냐하면 유럽에서 미국식 고층건축의 건설이 도시공간계획의 결점(缺點)으로 오래 전부터 비난받아 왔기 때문이다.<sup>3)</sup>

유럽의 대표적 고층건축에 관한 계획은 미국의 사례로부터 차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건축형태(building type)는 미국적 문맥과는 전혀 다른 상징적 내용을 갖고 있다.

### 낭만적 사회주의

1919년 9월, 웬딩언(Wendingen)지의 창간 겸 편집자인 뷔드벨드에 의해 놀랄만한 고층건축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안(그림 1~3)은 암스테르담의 폰델공원단지(Vodel Park)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립대극장(Volks Theater)과 이것에 부



그림 1. 뷔드벨드, 폰델공원 계획안(1)의 배치도(암스테르담), 1919  
이 계획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타워건축물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계획안은 르 꼬르뷔제의 '300만명 현대도시계획안'보다 3년 앞선 것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직선축과 대규모적 성격에서 볼 때, 이 계획안은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대한 뷔드벨드의 성과를 볼 수 있다. 뷔드벨드의 이상적이고 낭만적 성격은 나중에 전개된 고층집합주택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확립시켜주고 있다. 듀이커가 고층건축(1927~30)에서 순수하고 합리적인 바탕에 근거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아마도 뷔드벨드의 계획안과 웬딩언지의 특집호에 실려 있는 고층건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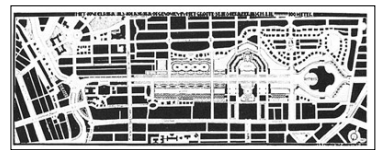


그림 2. 뷔드벨드, 폰델공원 계획안(2)의 배치도(암스테르담),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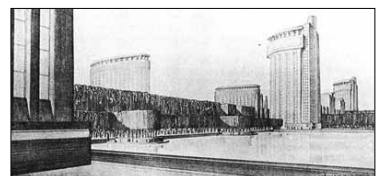


그림 3. 단지 중앙의 고층건축군의 투시도

1) Leonard K. Eaton, Louis Sullivan and Hendrik Berlage, American architecture Comes of Age-European Reaction to H. H. Richardson and Louis Sullivan (Cambridge, Mass., 1972), p.208.  
2) Eaton, p.231: 베를라헤는 라이트(Wright)보다는 설리번(Sullivan)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3) 유럽에 있어 고층집합주택에 대한 비평가 및 지지자 모두 미국형 고층건물은 전체적인 도시의 유효성을 높일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윈(Unwin)은 1922년 암스테르담의 강연회에서 고층 및 고밀도 지구의 문제점에 관하여 상식적인 비판을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듀이커는 미국 고층건물의 기술적 의의는 인정하지만 공간의 구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건축으로서의 통일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Raymond Unwin, Eenige stedenbouwkundige problemen, Part III of the City Planning series of the Nederlandsch Instituutvoor Volkshuisvesting en Stedenbouw (Haarlem, 1923), p.27, p.17, J. Duiker, Hoogbouw(Rotterdam, 1930), p.11.

속되는 다양한 시설 즉 야외극장, 스포츠 홀 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독립한 30층 높이의 초고층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안에서 중요한 것은 직선적 계획 원리에 바탕을 둔 19세기 영국식 정원설계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한 르 꼬르뷔제가 1921년부터 1922년에 걸쳐서 계획한 '300만 현대도시계획안'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파리 '보아쟁 계획(Plan Voisin)'<sup>4)</sup>보다도 앞서 계획되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혁명적인 제안인가?

뷔드벨드는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상당히 어릴 적부터 네덜란드 국내와 해외의 여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특히 그는 네덜란드 1세대 건축가인 카웨퍼스(P.J.H.Cuypers)의 사무실에서 6년간(1899~1905) 근무한 적이 있다. 여기서 뷔드벨드는 러스킨과 모리스의 이념을 접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현대사회에 있어서 데카당(decadence)에 대한 관찰에 감명을 받았다.<sup>5)</sup> 카웨퍼스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뷔드벨드는 문화로서의 건축이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up>6)</sup>

또한 뷔드벨드는 카웨퍼스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바젤(De Bazel)과 라우베릭스(J.L.M.Lauweriks)와 친분을 쌓는 기회도 갖는다. 이들은 당시 신지학 운동(theosophical movement)에 참가하였으나 1895년 뷔드벨드는 이미 카웨퍼스 사무실을 떠난 이후였다. 뷔드벨드는 1905년 영국으로 건너가 여기서 발생한 미술공예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뷔드벨드는 작가이자 이상주의자인 프레데릭 판 에이던(Frederik van Eeden)을 높이 평가하고 그가 제안한 이상적인 공동체 여프 후이(Het

Gooi)에 속한 발덴(Walden)은 20세기초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뷔드벨드는 라우베릭스와의 교류로 웅덩이 언지의 창간을 위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이런 뷔드벨드의 지적 배경요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으로 발전하였다.

모리스, 신지학 그리고 뷔드벨드 자신이 꿈꾸고 있던 미래의 비전이라는 지적 환경에 있어서 1915년 뷔드벨드가 제안한 '환상적인 건축설계경쟁안'은 십자의 왕관을 씌운 중심적 건축형태이지만 고층 도시건축을 능가할 정도의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sup>7)</sup>

뷔드벨드의 사상이 가지는 표현주의적 성격은 1918년 1월, 웅덩이언지의 창간호에 발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1918년이 끝날 무렵, 뷔드벨드는 베를린을 방문하여 멘델존(Mendelsohn)과 베네(Behne) 등과 만나게 된다. 베를린 건축가들과 연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던 뷔드벨드는 타우트(B. Taut)의 저서 '도시의 왕관'을 탐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폰델공원계획안은 도시성장을 위한 직감적 방안이었고,<sup>8)</sup> 실현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상징으로서의 성격이 더 뚜렷하였다. 1919년 9월, 폰델공원계획안의 잡지 기고와 더불어 발표된 그의 짧은 해설은 고층건축의 이미지가 어떻게 사회적 개념과 관계 지을 수 있을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위대한 힘이 뻗어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 현대사회의 거대한 중심으로부터 솟구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중심부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수백만의 노동자는 자기들의 이상이 성장사회의 공동체 밖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다."<sup>9)</sup>

뷔드벨드의 계획안은 건축의 미래사회에서 비전을 상징화하기 위해 응용한 이미지였다. 폰델공원계획안에서 볼 수 있는 유사-미래파적(quasi-futurist) 성격은 뷔드벨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스테일(De Stijl)의 이념과 공통적인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다. 1913년 로테르담에서 미래파의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보다 1년 앞서 1912년 파리에서 이미 같은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출품한 작품의 일부는 헤이그에서도 전시되었다.<sup>10)</sup>

그러나 뷔드벨드가 1914년에 만든 폰델공원계획안은 1919년 8월 더 스테일지에 소개된 상델리아(Sant'Elia)의 '계단형 집합주택 계획안'보다도 더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sup>11)</sup>

상델리아의 표현 이미지는 네덜란드 건축가 스타름(M. Stam)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1922년 실시된 코니흐스베르흐(Konigsberg) 설계경기 안에서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뷔드벨드는 1923년 웅덩이언지에 고층건축에 관한 특집을 낼 때 상델리아 작품을 게재하지 못하였다. 1917년 마



그림 4. 고층건축에 관한 특집이 실려있는 웅덩이언지의 표지(1923)

4) 르 꼬르뷔제가 뷔드벨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이것에 관해서 저자는 1974년 6월 1일 뷔드벨드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다. 여기서 그는 '뷔드벨드는 암스테르담 확장계획이 진행된 직후인 1919년부터 1920년 사이에 이 계획의 복사본을 르 꼬르뷔제에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것에 오픈 스페이스에서의 독립 타워건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뷔드벨드는 보낸 날짜를 1920년경이라고 지적하지만, 이 날짜는 좀더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파넬리(Fanelli)는 앞서 게재한 저서 p.97에서 뷔드벨드는 1920년 파리에서 오자팡(Ozanfant)을 만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5) Nic. N. Tummers, 'De mise en scene van de architectuur - Plan the impossible', Bouwkunding Weekbald, No.19(1965), p.336. 저자가 폰델공원계획의 기초를 끝낸 것에 대해 질의한 결과, 특히 모리스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었다. 뷔드벨드(Wijdeveld)가 모리스(Morris)와 러스킨(Ruskin)으로부터 받은 충격에 관해 알고 싶으면 H.Th.Wijdeveld, Illusions van de Komende Schoonheid, Aechitectura, 23, No.42(1915), p.267을 참조할 것.  
 6) P.J.H. Cuypers는 베를라해와 같이 '문화로서의 건축이념을 향해 커다란 활력을 부여한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Fanelli, p.345.  
 7) Frank, Michel de Klerk, p.58.

리네티는 두스부르흐에게 상펠리아 작품을 주의 깊게 보도록 권유하였다.<sup>12)</sup> 1919년 뷔드벨드의 폰델공원계획안은 상펠리아의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뷔드벨드가 쓴 폰델공원계획안에 관한 해설에서 미래파적 이념을 감지할 수 있다. 이보다 조금 앞서 건축가 빌스(J. Wils)는 미래파와 라이트를 대등하게 다룬 바 있다.<sup>13)</sup> 뷔드벨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도시는 근대적인 운동을 지향해야만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과거의 잔재는 새로운 시대의 경제와 기계화의 요구에 대해서 길을 양보해야만 한다. 도시의 고동(heartbeat)은 빠르고 그리고 혈액은 메트로폴리스의 중심에서 아름다운 흐름의 교통과 병행하여 발전해야만 하는 정맥(veins)을 통하여 지금 이 상으로 빠르게 순환하고 있다.”<sup>14)</sup>

#### 이미지의 확산

1919년부터 1920년 사이, 뷔드벨드는 폰델공원계획안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이념을 암스테르담 시 전체에 걸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암스테르담을 위한 뷔드벨드의 이상적인 계획은 역사적 중심지로서의 핵(core)을 보존시키고, 이 주위를 8km 정도의 폭으로 링의 형태로 둘러싸는 것이다.<sup>15)</sup>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확장되어 가는 직선상의 지역(linear zones)에 고층건축을 배치하고 광대한 녹색의 열린 공간이 방사형 지역을 상호 분리시키고 있다. 이런 계획보다도 더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1923년 발행된 웅딩언지 제3호에 『업무와 주거시설

의 문제해결방법으로써 고층건축』이라는 제목의 특집이었다. 이 특집은 테마의 분석보다는 오히려 이미지의 집합을 그리고 웅딩언지의 다양성과 비시스템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미국 고층건축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프리드리히 거리(Friedrichstrasse), 퀴니흐스베르흐 등의 설계경기계획안이 함께 게재되어 있어 특이할 만하다. 하지만 시카고 트리뷴 설계경기에 참가한 네덜란드 건축가의 제출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뉘이꺼의 작품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웅딩언지에 실린 고층건축에 대한

특집은 새로운 미학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폴레믹(polemic)하지는 않았으나 고층건축에 대한 유럽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고층건축에 관한 특집의 간행으로 뷔드벨드가 생각한 고층건축의 상징적인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다.

“자본의 잦은 고층건축은 미국에서 신탁회사와 은행의 건물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이것은 자본주의의 화려한 시대에 격렬한 운동이 동반하고 있었다. 현재 이런 과정은 또 다른 하나의 선구자로 보인다.”<sup>16)</sup>

이런 정신은 웅딩언지의 표지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 4). 방사형의 빛과 힘이 고층건축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는 파이닝거(Feininger)가 1919년 바우하우스 표지를 위



그림 5. 스타, 민영집합주택(암스테르담, 빅토리 광장), 1929~32. 암스테르담 최초의 고층건축물인 이 집합주택은 '1915년 베를라헤가 암스테르담시 남북확장계획안에 기초한 도시경관의 미학적 강조를 부가한다'라고 하는 요구에 기인하고 있다. 이 계획부지는 도로의 주요 교차점에 있었다. 뉘이꺼의 고층건축은 생활공간이 남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매스와 공간의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스타의 집합주택에서 각 세대는 베를라헤의 직선축을 따라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뉘이꺼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건설되는 것에 비판을 하였고, 또한 '거의 모든 경제적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 집합주택은 각층에 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24세대이다. 이 정도의 규모에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8) Tummers, De mise en scene van de architectuur, p.343.  
 1934년 뷔드벨드 계획에서 보이는 합리적 고찰에 관한 바우어(C.Bauer)의 지적은 부정확하다고 본다. '다중주택(multiple dwelling)의 잠재적 이점 및 경제성을 발견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분석 작업은 뷔드벨드, 르 꼬르뷔제 그리고 그 밖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건축가가 착수하기까지는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만약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미약한 것에 불과하였다', Modern Housing, p.56.  
 9) H.Th. Wijdeveld, Het Groote Volkstheater, Wendingen, No.9/10(1919)를 참조.  
 10) Banham, p.127. 11) De Stijl, II, No.10, p.115.  
 12) Banham, p.127. 13) Banham, p.165. Wendingen, No.6(1919), p.16을 참조할 것.  
 14) Wendingen, No.9/10(1919), p.8.  
 15) 이 계획에서 보여주는 집중적이고 방사상의 성격은 1905년 바젤의 세계도시(world capital)계획(Hague)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 신지학(神智學)의 원리가 적용하고 있다.  
 16) Wendingen, No.3(1923), p.3.

해 그린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미지가 낭만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웬딩언지에 실려 있는 고층건축에 관한 특징은 노동자용 고층건축 주거(high-rise dwellings)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듀이꺼의 관심을 자극하였을지도 모른다.<sup>17)</sup>

뷔드벨드의 고층건축계획안에 내재되어 있는 낭만적 접근에 관한 논쟁은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의 루스트레흐트(Loosdrecht) 노동자 커뮤니티계획안에 대한 당시의 의견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당시 더 야흐드와 오쉴바우 건축가들의 이념과 일치하는 형태언어(formal idiom)로 디자인한 호숫가의 고층건축계획안이다.

로흐렘은 이 계획안을 1932년에 출간된 『건설』이라는 잡지에 게재하였다. 이것은 예술적, 문화적 재생에 공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로흐렘은 뷔드벨드와 그의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건축을 사회적 문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현실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노동자 커뮤니티는 대규모 그룹(big groups)이 새로운 것과 인생 전체에 대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다.”<sup>18)</sup>

즉, 그는 고층건축이 갖는 최대의 특징은 미래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생산하는 이상주의지만 이 이미지는 새로운 건축의 사회적 의미가 이해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뷔드벨드의 고층건축계획안은 애매한 측면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함을 로흐렘 등의 건축가들은 '도시와 대지를 파괴하는 진부한 건설과정'이라고 단정 짓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구체적인 전

개를 시도하고 있었다. 로흐렘은 이런 과정에 대한 사회적 자각만이 노동자 커뮤니티에 유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뷔드벨드의 공헌은 고층건축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는 미래파적 도시 이미지에 대한 기초를 발전시킨 것에 있다. 이런 포괄적인 이미지는 후에 도시 전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고층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건축가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뷔드벨드는 고층건축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미국적인 것과도 또 다른 의미를 부가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도심부에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고층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뷔드벨드도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미학적 적용

기능주의자들 스스로 고층집합주택을 어떤 측면에서 고찰하였는지를 기술하기 이전에 합리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뷔드벨드의 공상적이고 미래파적인 이미지만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고층집합주택의 최초의 형식은 19세기의 이념과 20세기 이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상호작용의 형태를 명백히 구분 짓고 있다. 최초의 고층건축은 기본적으로 미학적 동기에 기초하여 건설되었다.

1925년 12월, 암스테르담시 시의회 의원인 훌던(Gulden)과 보이쉴빠인(Boissenvain)은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4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어느 장소에 건축이 가능할까?'라는 전제로 건축물의 고도제한 조례의 변경을 제한하였다.<sup>19)</sup>

이런 '시각적 강조를 얻기 위한 미학적 관점'<sup>20)</sup>을 성립시키려는 배경은 지테와 어원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두 사람의 이념은 베를라헤의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계획안은 암스테르담에서 집합주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위해 시장과 시의회 의원 중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인사들에 의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집합주택은 일반적으로 건축조례 98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 가능한 층수 이상으로



그림 6. 기준층 평면도  
① 거실, ② 침실, ③ 부엌, ④ 욕실, ⑤ 발코니, ⑥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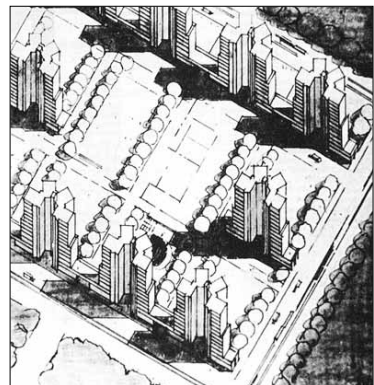


그림 7. 듀이꺼+비벤하, 고층건축계획안, 1927~30. 듀이꺼의 고층건축계획안은 스탈이 계획한 암스테르담의 고층건축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다른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 두 건축가의 계획은 베를라헤, 뷔드벨드, 르 꼬르뷔제의 작업과 공통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뷔드벨드는 폰델공원계획안(1919)과 고층건축에 관한 웬딩언지 특집(1923)으로 듀이꺼의 관심을 자극하였다. 베를라헤의 합리주의와 주택에 관한 사회적 책무는 고층건축에 관한 듀이꺼의 분석적임에 보다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건설기술과 계획규모의 분석을 통하여 듀이꺼는 통풍이 잘되고, 빛이 잘 들며, 비교적 널찍한 공간을 확보한 주택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17) 이 관계성은 암스테르담의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aukunstr를 쓴 비르크(D.van Woerkom)이 지적한 바 있다. 이 의견은 '고층건축' 중에서 듀이꺼가 사용한 그림의 대부분이 1923년 웬딩언지의 고층건축 특집호에 게재된 것과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증명되고 있다.

18) J. B. van Loghem, Bouwen (Amsterdam, 1932), p.46.

19) M.E.H. Tjaden, Een Struggle for High Life te Amsterdam, Bouwedrijf, 6, No.5(1929), pp.77~88.

20) Rapport van de Commissie voor den Hoogen Bouw(Amsterdam, 날짜 없음, 1932년으로 추정), p.4.

로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략) 도시미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경우 제한된 지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원칙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sup>21)</sup>

1929년 1월,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다니엘 빌린 광장(Daniel Willinplein, 현재는 빅토리아 광장/Victorieplein)지구를 포함하여 3지구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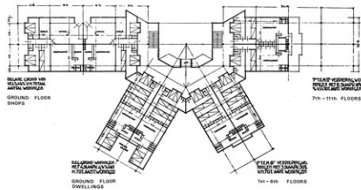


그림 8. 평면도, 각층의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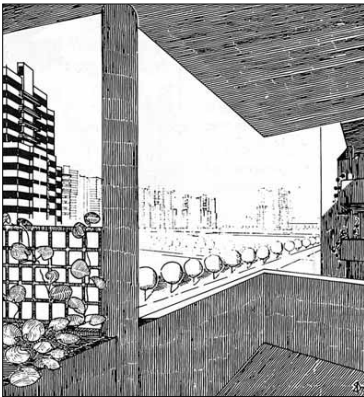


그림 9. 발코니에서 내다 본 전경의 스케치. 듀이꺼와 로흐헬름은 그들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층집합주택에 대한 주요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들은 전원도시 이념의 양상(樣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즉 듀이꺼는 고층건축 계획에서 각 건물에 인정하는 오픈 스페이스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방적인 배치계획을 '대규모 전원도시 지구'로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로흐헬름은 1922년부터 1923년에 걸쳐 건설된 암스테르담의 바테르호라프스 메이어 집합주택에서 보다 직접적인 전원도시계획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고층집합주택이 도심에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듀이꺼와 비엔라의 계획안은, 특히 주택의 방위에 관한 고찰에서 설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르 꼬르뷔제의 '보아쟁 계획'과 '300만 현대도시계획안'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로흐헬름은, 특히 르 꼬르뷔제를 상찬(常贊)하고 있지만 고층 집합주택이라고 하는 구상에서 볼 때 르 꼬르뷔제 계획안 이외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 계획안은 심사위원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거부 이유로서 비싼 건설비용과 모서리 세대의 부적합성을 들고 있다.

한하여 적용되었다. 이는 베를라헤의 암스테르담시 남북확장계획안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데, 여기서 베를라헤는, 특히 고층건축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상징적 건축은 의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건축물이 확장계획을 통하여 건설됨으로서 중요한 장소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이미 1909년 발표된 어윈의 저서 『도시계획과 그 실천』에서 지적된 원리 중의 하나였다.

스탈은 1932년 중산층을 위한 고층집합주택(그림 5~6)을 설계한 듀독(Dudok)과 합리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요소를 융합시키는 유사한 작업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좀더 고층화가 의도되었고, 이런 고층집합주택의 방위는 베를라헤의 가로계획 축선(軸線)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로 집합주택의 반 이상이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건축물은 2개의 수직축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유리로 뒤덮인 계단실과 거대한 굴뚝이 그것이다.

이 두 요소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의 획일적인 성격(monolithic nature)을 깨뜨리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스탈이 설계한 빅토리아 광장의 고층집합주택은 고층건축물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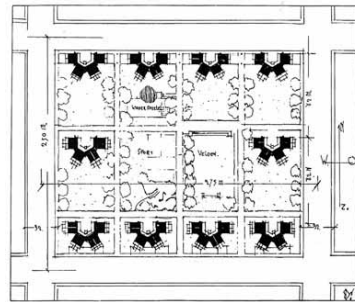


그림 10. 배치도

과 배면의 양면성 대립, 좌우대칭의 디자인, 표현상의 특징적인 요소로서 수직동선 요소의 활용과 같은 특징의 대부분은 1930년 듀이꺼의 '고층건축' 계획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듀이꺼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듀이꺼는 한 층에 2세대씩 전부 24세대를 배치하였는데, 여기에 2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하였다. 그는 '거주자 개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조롱적인 농담을 하였다.

듀이꺼의 작업은 뷔트벨드 작업의 낭만주의적 성격에서 신즉물주의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경계선상에 있었다. 이런 듀이꺼의 접근은 암스테르담 고층집합주택에 관한 비평에서 간단히 표면되었다. "여기서 건축가는 경제적인 원칙을 거의 무시하였다. 노동자층의 범주에서 중앙설비가 필요하다면 우선 경제적으로 가능한 건설방법을 주의 깊게 찾지 않으면 안된다."<sup>22)</sup>

### 합리성

1927년부터 1930년 사이에 듀이꺼와 비엔라의 분석적인 작업은 '고층건축'(그림 7~10)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미학적 동기에 바탕을 둔 것과 매우 대조적으로 '분석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고층건축에 관한 웬딩언지의 특징은 듀이꺼 등의 건축가를 자극하였으나 노동자를 위한 집합주택의 잠재적 상징성에 관해서는 베를라헤와 아우드의 전통적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듀이꺼는 미국의 고층건축에서 볼 수 있는 빈약한 공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1) Tjaden, p.77.

22) J. Duiker, Het Volk, January 1933.에 수록. E. J. Jelles and C.A. Alberts, Duiker 1890~1935, p.139에 영역(英譯). 이 번역은 Forum, 22, Nos. 5, 6(1972)에 실려 있는 내용을 다시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결점은 강렬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고층건축의 위상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이것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도 문화에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었다.”<sup>23)</sup>

듀이꺼를 강하게 어필한 이미지의 바탕은 건물 내부에 다양한 공유설비를 집합화하는 것에 있었다. 1899년 베를라헤는 중앙난방의 위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중앙난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생활 전체에 걸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에 의한 생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한 개의 커다란 실내 난로인 것이다. 대규모 건물이 도시 한 가운데 우뚝 서 있고 굴뚝이 타워처럼 높이 솟아 있다. 공장의 벽과 같이 내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하는가?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 내고 따뜻한 온기를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보내고 있다. 마치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sup>24)</sup>

고층건축계획안의 중요한 공헌은 노동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설비를 공급하기 위한 시도가 건축의 경제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제한된 집합주택은 지금까지 설계되고 지어진 어떠한 집합주택보다도 수준 높은 것이다. 특히 듀이꺼가 제안한 고층 집합주택은 혁신적일 정도로 집합주택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집중화된 중앙 설비는 지금까지 개인주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하였다.”<sup>25)</sup>

듀이꺼는 다른 신즉물주의 건축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련한 적이 적었지만 고층집합주택의 ‘집합적(collective)’

생활 이미지는 대단한 흡인력을 갖고 있었다. 고층건축에 대한 논쟁은 기술적인 측면이 대부분이지만 1933년 독일에서 발생한 정치적 대립은 그가 자기의 위치를 좀더 강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정치적 입장을 현실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1933년 듀이꺼는 사회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반대되어야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크고 작은 정원으로 분리되어 서로 인접한 크고 작은 주택들의 배치, (생략) 모든 노동자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붙어있는 집을 소유해야한다. 고층건축계획의 출현에 대한 고통스러운 외침은 완전히 브루주아적 성격으로 간주될 것이다.”<sup>26)</sup>

이 이야기는 전원도시의 인식에 대한 완전한 거부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원도시운동에 대한 듀이꺼와 다른 기능주의자의 책무는 이미 기술하였다. 이 건설에 관한 의외의 결론은, 특히 듀이꺼의 경우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있지만 이것은 하워드리의 원리가 네덜란드에서 수정(修正)을 가함으로써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듀이꺼는 전원도시가 갖는 브루주아적 특성이라든가 통근시간의 문제, 그리고 근대적 기술의 장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고층집합주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다음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빛과 공기의 필요성, 이것이 전원도시의 장점이다.”<sup>27)</sup>

그러나 그는 나중에 로흐햄 등의 건축가가 고층건축의 블록과 타워로 해결할 수 있는 공기와 개방성에 관해 완벽할 정도로 실험한 균질의 배치계획(homogeneous site plan)에 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그림 11~12)

미국에서의 실험과 대조적으로 듀이꺼는 언제나 집단으로서의 주동(dwelling blocks in groups)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간은 항상 개방적이되 폐쇄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1927년부터 1929년 사이에 헤이그에서 지어진 니르바나 집합주택(Nirwana flats)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은 비벤하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방형 평면으로 구성된 5개 동(棟)이 지그재그로 배치되고, 모서리에서 서로 연결하였다(그림 13~16). 이 계획에서 5개의 블록 중 1동만이 건설되었다. 고층건축계획에서 보여준 타워 그룹(the group of towers)의 배치는 중심성을 갖는 공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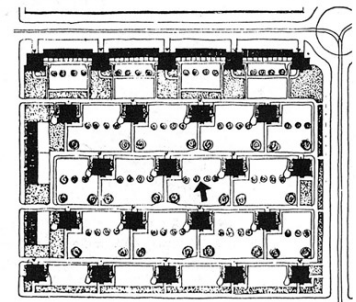


그림 11. 로흐햄, 설계경기에 제한된 저렴한 노동자용 집합주택의 배치도,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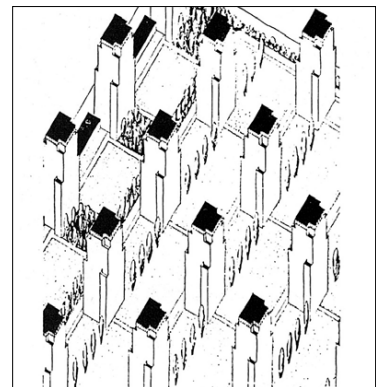


그림 12. 투시도

23) Duiker, Hoogbouw, pp.11-12.

24) H. P. Berlage, De Menselijke Woning, 1889년의 강연기록. Singelenberg, p.59에 인용되어 있다.

25) J. Duiker, Het Volk, January 1933에 수록.

26) Ibid.

27) Duiker, Hoogbouw, p.20.

4개의 날개(the four-armed)를 갖는 12층의 고층집합주택은 일자형 배치와 동일하게 남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층집합주택은 르 꼬르뷔제의 십자형 타워(Le Corbusiers cross-shaped towers)가 갖는 결점을 보완한 방위로 평가받고 있다.

고층건축의 성격에서 보면 듀이꺼의 관심은 수단과 목적이라는 두 가지 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매력이다. 듀이꺼가 계획한 쏬네스트랄 스타다움(Zonnestraal Sanatorium)과 오픈 에어 스쿨(Open Air School)은 새로운 건축의 다양한 측면, 특히 위생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층집합주택의 기술적이고 집중화된 형태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듀이꺼와 몇몇 유럽의 건축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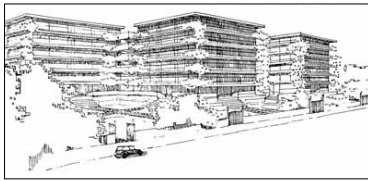


그림 13. 다위꺼+비벤하, 니르바나 집합주택의 투시도 (헤이그, 뵤노르던하우트세베호), 1927~30.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기성 집합주택이 네덜란드에서도 시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비벤하의 제언에 기초하여 건설된 이 계획은 비교적 실패적이었다. 본래 5개동을 연속한 발코니로 연결시킬 계획이었지만 실제 1동만 건설되는데 그쳤다. 연속한 발코니는 규모가 작은 세대에 보다 큰 창고의 필요성이 시도되었다. 실제 이 건물은 초기에 의도된 것과 정반대로 융통성을 갖지 못하였다. 듀이꺼는 고층집합주택을 설계한 다른 건축가와는 달리 건물과 관련하여 외부공간을 한정시키고 부분적으로 폐쇄된 공간을 만들었다. 듀이꺼는 항상 조직화된 집단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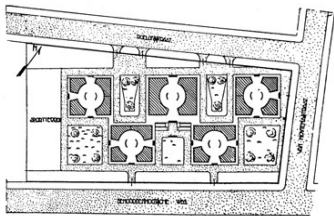


그림 14. 배치도

은 미국의 고층집합주택을 개선하는데 열성적이었다.

만약 박공(pediment)을 장식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유럽의 저층건축물에서 보여주는 솔직한 표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고층건축은 구조해석이라는 현대기술의 적용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듀이꺼는 특히 경제적 수단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아메니티(amenity)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에 집착하였다.

순수한 구조와 새로운 재료에 대한 매력도 있으며, 또한 고층건축만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고층건축』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뉴트라(Richard Neutra)의 『미국』이라는 저서에서 소위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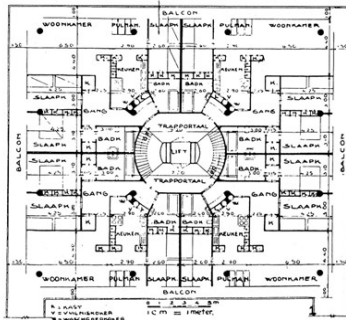


그림 15. 평면도



그림 16. 외부전경 사진

드(nudity)구조로 불리는 고층건축의 사례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이런 시점을 가중시켰다.<sup>28)</sup>

『고층건축』에 실려 있는 분석적 방법은 당시 네덜란드에서 건설 중에 있던 집합주택의 사례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용 집합주택에 중앙 설비를 가설한다는 것은 비단 고층건축에 그치지 않았다.

그로피우스는 고층집합주택을 옹호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집합주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고층집합주택이라고 하는 이념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고층건축위원회의 부결

몇몇 사회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던 시의회 의원들은 암스테르담 남부에 스탈이 계획한 고층건축 볼곤 플라버의 건설에 대한 초기의 설계안에 대해 고층건축의 문제점을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여 1929년 고층건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 중에는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를 설립한 후디흐(D.Hudig), 주택공공위생 주임 검사관인 개(H.van der Kaar), 힐(Octavia Hill)의 제자이며 암스테르담시 건강위원회에 소속되었던 페크-벤트(L.van der Pek-Went), 그리고 구조기술자이며 건축가인 비벤하(J.G.Wiebenga)가 임명되었다.

비벤하는 이 위원회가 활동하기 이전부터 고층집합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위원회의 멤버 중에서

28) 정확한 서명은 R. Neutra, Amerika-Die Stibildung des Nenun Baren in Den Vereinigen aaten(Vienna,1930). Nenus Baren in der Welt 시리즈 중의 한 권.



신즉물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어떤 주장에 의하면 비벤하는 미스 반데르 로에가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우리 고층건축'을 계획하였는데, 당시 라멘구조의 적합성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얼마 후 비벤하는 프루흐트(Van der Vlugt)와 협력하여 후로닝언(Groningen)의 공업기술학교(Technical Trades School) 계획을 주도하였다. 1920년 브린크만이 작고한 이후, 판 넬레 공장(Van Nelle Factory)의 설계에서 프루흐트는 중요한 협력자였다.<sup>30)</sup>

1923년부터 1926년 사이 비벤하는 미국에 체재하면서 대규모의 토목계획에 참여하였다. 이런 경험은 헤이그의 니르바나 집합주택과 고층건축에 대한 듀이꺼와의 협력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의 작업에 대한 경험은 고층건축위원회에서 그의 지위를 갖게 하였다. 위원회의 중심과제는 일반 주택문제 중에서 우선 고층 집합주택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에 집중되어 주(週) 6길더 이하로 임대가능한 방법과 고층집합주택에서 만족할 수 있는 특수한 생활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양심적인 의식으로 맡은 일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들은 연구목적 자체가 노동자용 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나중에 이 연구는 노동자용 주거에 한정하여 진행되지 않도록 강조되어 1929년 4월 위원회의 취임식에서 당시까지의 영역을 넘은 그 이상을 조사항목으로 삽입시켰다.<sup>31)</sup>

1. 6층 이상 10층 이하의 고층주택이 노

- 동자용 주택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 2. 도시계획상 고층주택 지구에서 건설의 효과
- 3. 고층주택 지구에서 교통문제의 부담
- 4. 적합한 건설기준
- 5. 고층주택 건설로 생기는 위생상의 이점과 결점
- 6. 고층주택의 경제적 이해득실

1932년 12월,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네덜란드와 해외에서 주택문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접근에 폭넓은 이원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중 하나는 전원도시 혹은 전원도시지구에 있어서 단독주택(the one-family house)의 건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축물에 집중화된 설비와 조직화된 공원을 동반하는 고층의 '도시형 건축'의 건설이었다.

이런 이중성을 인식함으로써 위원회는 스스로 시(市)위원회(the municipal commission)의 초기 작업을 보완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보고를 위한 사례수집의 어려움을 걱정하였다. 따라서 참고용에 지나지 않는 계획안 내용의 재검토가 요청되었다.

파리와 빈(Vienna)에 건설된 5층부터 7층까지의 집합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적합한 연구사례가 되지는 못하였다. 스탈이 설계한 고층집합주택과 듀이꺼의 니르바나 집합주택은 지나친 공사비로 노동자용 집합주택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아 좋은 사례는 되지 못하였다.

듀이꺼와 비벤하는 위원회에서 강의를 하고 1930년까지 위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고층건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이 두 사

람은 또한 고층건축을 노동자용 주택건설에 도입한 브뤼셀 근교의 플로알(Flooreal) 전원주택을 방문 연구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고층집합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세대 당 토지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림 17. 브린크만+프루흐트+페인, 베르호플더 집합주택 (로테르담), 1933~34. 1930년대 고층집합주택계획안은 단일 건물보다 주로 집단화되고 층수가 많은 탑상(towers)내지는 슬래브(slabs)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단지 주어진 부지의 조건만이 아닌 도시 전체라는 문맥의 시점에서 고층건축의 이점을 살린 결과였다. 베르호플더 집합주택은 대량 생산방식으로 주택공급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폭넓은 확산에 바탕을 둔 보다 크고 보다 기념성이 높은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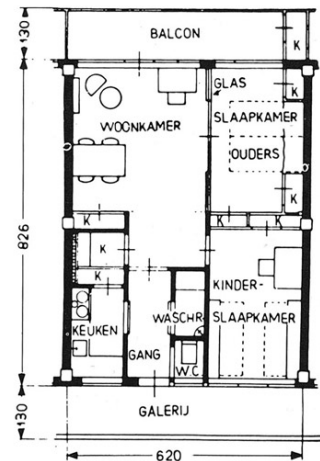


그림 18. 단위 평면도

29) Jells and Albert, Duiker, pp.1-2. '듀이꺼와 도시기술자인 비벤하와의 공동작업은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축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923년 웨딩언지의 고층건축 특집호의 유리창 마천루계획의 그림 설명에는 'Mies van der Rohe, Holland' 라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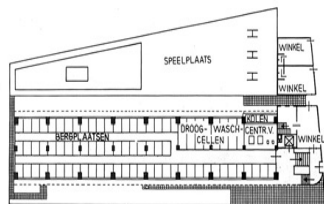
30) Robert Vickery, Bijvoet and Duiker, Perspecta 13(New Haven, 1971), pp.139-150.  
31) 실사에 관한 이하의 정보는 Rapport van de Commissie voor den Hoogen Bouw에 의함.

은 환상에 불구하고, 특히 당시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주택건설에 대한 비용절감은 경제적인 구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측면을 주의 깊게 구분하려 하였다. 고층건축은 단위계획과 자연채광의 관점으로부터 양호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노동자 가족을 위한 주거로서 고층집합주택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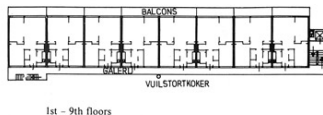
이런 결론은 엘리베이터에 의존하는 고층집합주택이라는 데에 있다. 엘리베이터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네덜란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주부로서는 고층집합주택이 불편한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도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고층집합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어떠한 사실보다도 가



Basement and ground floor

그림 19. 배치도



1st - 9th floors

그림 20. 1층에서 9층까지의 평면도

정(家庭)이라는 존재를 동일한 건물 내에 수용하려는 것 자체가 큰 결점이다.”<sup>32)</sup>

이 같은 사회적 관점은 고층집합주택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료를 높인다는 대부분 위원들의 믿음과 부합되어 노동자를 위한 고층집합주택의 건설을 포기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단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단순히 낮은 인구밀도나 저층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1934년 몇 가지 점에서 확장계획을 예상하여 일부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하였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는 굉장히 거대한 것이고 분산적인 것이다. (생략) 지자체는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리고 확장계획에서 고층건축과 저층건축의 양면을 고려해야 한다.”<sup>33)</sup>

소수 위원들은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합주택을 4층으로 제한하여 계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후디흐와 비벤하는 위원회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비벤하는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합리적인 비용 평가에 바탕을 두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의 건물에 많은 가정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고층건축위원회는 이런 논쟁을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것은 신즉물주의 이념과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제도화되고 정치적인 보수 집단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투쟁 중의 한 가지 예로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양극화(polarization)는 독일에서 겪은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 노동자를 위한 위원회의 고층집합주택 건설반대는 듀이꺼로부터 고층집합주택을 옹호할 만큼의 이데올로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다른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이데올로기 논쟁을 최대한 끌어들이자는 지적도 있었다. 이것은 지자체의 규모에서 광범위하게 걸친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 같은 존재보다도 더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위원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된 태양위원회는 로위선(van Lohuizen), 그리고 에이스페르의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 세련미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추진한 도시계획의 수준을 높은 공헌자로서 평가받고 있었다.

#### 로테르담의 베르흐플더 집합주택

고층건축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2년 전, 주택법 아래서 지어진 베르흐플더 집합주택은 고층집합주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집합주택은 브린크만, 흐루흐트, 떼인에 의해 설계되어 로테르담 시내에 건설되었다.(그림 17~20)

로테르담 국민주택조합이 로테르담 시내에 대지를 구입하여 건설된 이 집합주택은 가능한 최대한의 오픈 스페이스를 갖도록 할 것과 72세 이상을 짓지 않도록 요구되었다.<sup>34)</sup>

로테르담에서는 암스테르담의 경우와 달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두지 않았다. 게다가 베르흐플더 집합주택은 기존의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고층집합주택을 반복 배치시킴으로써 대규모 도시계획의 장점을 살리고, 좀더 포괄적인 이미지의 단편을 형성한다고

32) Ibid., pp.15-16.

33) Ibid., pp. 17.

34) Alferd Roth, The New Architecture(Zurich, 1946), pp.91~104를 참조할 것. 베르흐플더 집합주택과 플라산(Plaslaan) 고층집합주택을 기술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이 도시에서 보다 더 포괄적인 비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건설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는 노동자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도입한 고층집합주택의 건설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집합주택은 1934년 이전에 지어졌지만 집합주택이 갖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원형(prototype)으로서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르 꼬르뷔제의 유니테(Unites) 집합주택보다 앞선 것이다. 그러나 이 집합주택의 건설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30년부터 1932년까지 르 꼬르뷔제는 제네바에 있는 클라테 집합주택과 파리에 있는 스위스 학생기숙사를 설계하였다.

비록 이 두 건물이 노동자용 주택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보다 많은 건설비용이 들었다. 이 두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긴 장방형의 단순한 형태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립식 부재의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을 주당(週當) 6.16길더에서 7.35길더 사이의 금액으로 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주택공급의 측면에서 축복이었다.<sup>35)</sup>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겨우 50m<sup>2</sup> 이하의 단위형식을 갖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히 젊은 핵가족에게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엘리베이터 건설비용의 최소화는 전쟁 이전과 대조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의 주택형식으로 폭넓은 적용을 받고 있었다.

아러니컬하게도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을 방문해 보면 거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

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몇몇 사람은 대단히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각층에 서지 않기 때문에 각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참에서 내려 반 층 올라가거나 반 층 내려가야 한다.

당시 2층마다 계단참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 한 번 정지로 상하층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설치 방법은 엘리베이터의 관련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엑세스 갤러리(the access gallery) 이념을 집합주택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때인은 이런 이념의 출발점으로서 브린크만의 스텔런 집합주택(1919)을 지적하고 있다.<sup>36)</sup>

여기서 단편적인 것에서 생성될 수 있는 어떤 유형에 대한 변용(metamorphosis)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전원도시 이념의 전환(transformation)과 유사하게 폭넓은 사회적 이념에 속하는 물리적 형태를 물리적 감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런 변환은 몇 가지 이념 그 자체를 무시한 형태로 해석하고, 또한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런 과정은 특히 대량생산에 대한 낙관주의적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의 갤러리는 다목적 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타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스텔런 집합주택이 각 세대의 현관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여 갤러리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는 다르다.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건설될 시점에서 볼 때, 네덜란드 신즉물주의 이념을 대변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공생생산품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 이미지가 설계과정의 협동과 개인주의적 단편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때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개인주의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고, 희망, 노력,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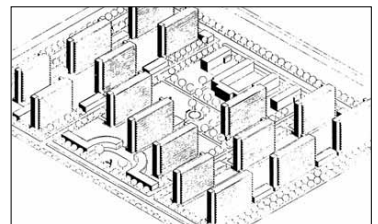


그림 21. 베르스테이흐,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의안 투시도,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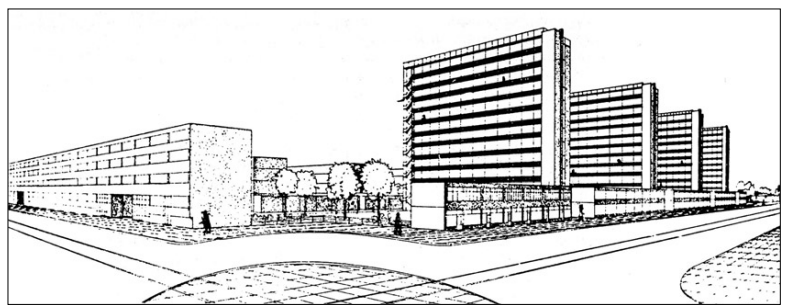


그림 22. 브룩,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의안 투시도, 1934  
브룩은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다양한 주택 형식과 층수가 다른 건물의 복합성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에도 극히 혁신적인 것이었다. 1933년 메르켈바하는 '더 아흐트'와 '오쁘바우'의 회원에게 1작품 이상의 계획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서신을 보냈다.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① 고층 집합주택, ② 4층 집합주택과 고층 집합주택의 혼합, ③ 4층 집합주택, 여기서 심사위원회는 설계경기에 제출된 작품들이 노동자를 위한 주택을 제안하였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브룩안은 수상한 4개의 작품 중 하나이다.

35) 1934년경 노동자의 수입은 23. 50길더 정도였다. Prak, Zeventig woningewt, p.41.

36) W. van Tijen, Het Woongebouw Bergpolde te Rotterdam in Aanbouw! De 8 en Opbouw, 5, No.6(1934), p.48.

지,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결과이다. 이런 것으로 독자적인 생활상을 획득하고 있었다.”<sup>37)</sup>

베르호플더 집합주택이 상징하는 것으로 뷔드벨드의 공상적 이미지의 추적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도입된 건축언어의 상징성이 의미하는 것은 1918년 발표된 논문 『예술과 기계』의 시점과 같은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베르호플더 집합주택은 보편적인 노동자용 주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성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건축구성요소의 각 부분의 표현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유리 판자’로 뒤덮인 계단실은 스타일 설계한 암스테르담의 고층집합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현성이 풍부하다. 그러나 베르호플더 집합주택 계단실의 공동성(communality) 이념은 스타일의 경우와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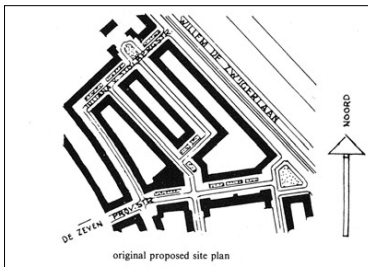


그림 23. 메르켈바하+까르스텐+보르깅+베르스테이흐, 란프러스트 주택조합+ 여트 베스틴 주택조합+ 라보르 주택조합+ 중합주택건설협회에서 공동 주관한 집합주택의 초기 배치계획안, 1935~38  
메르켈바하와 까르스텐의 발의로, 암스테르담시 서부확장계획안의 일부로 제안된 배치계획안은 폐쇄형 주동계획에서 개방형 주동계획으로 바뀌었다. 1920년대에 전개된 것과 달리, 이 계획안은 독일에서 이미 도입된 양식을 발전시킨 것이다. CIAM의 영향이래서 발전된 이 계획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화의 이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개방형 주동의 접근방법으로 ‘주거세대에 보다 양호한 일조’, ‘단지 자체로 유입되는 교통량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은 1930년대까지 일반적인 기능주의 건축가의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었다. 여기서 1932년 브룩이 설계한 로테르담의 브레이드를 집합주택과 같이 주동내부에 존재하는 공유정원에서 1층 세대를 위한 정원의 전용화는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은 보다 탁월한 공간적 균질성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공간적 균질성은 건축에 대한 차별화가 아니라 건축물의 앞과 뒤 사이에서의 기능적 차이에 의한 것뿐이었다.

테크니컬한 이미지의 배후에 숨겨진 깊은 신념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 1934년 :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을 위한 설계경기

이 설계경기의 의의에 대해서는 일자형 배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설계경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경기에 참가한 많은 건축가들은 고층주택(high-rise dwelling)에 대한 이념을 좀더 발전시키려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 설계경기에 제안된 고층집합주택의 형식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갤러리 슈퍼구조(gallery megastructure), 독립된 타워구조(point block towers), 그리고 베르호플더 집합주택과 같은 복합구조(multiple applications)를 들 수 있다. 쓰바흐스트라(Zwaagstra)가 제안한 15층 규모의 슈퍼구조는 전체 설계경기에 대한 자침을 하나의 구조물로 정리하려 한 것 이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 또한 각 세대에 적절한 채광이 되지 않았으며, 건축비도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입상(入賞)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떨어진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었다.

로흐헴이 설계한 16층 타워건축물 계획은 개념적으로 페레(A. Perret)와 르 꼬르뷔제의 1922년 프로젝트보다 앞서지는 못하였다. 이 계획안에서도 지나친 건축비가 문제가 되어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 건축계획에서 모든 세대는 코너 세대(모서리 주택)로 구성되어 결국 이런 제안은 부적절한 주거 형식으로 판단되었다.”<sup>38)</sup>

이 설계경기에서 로흐헴은 이미 전원이념

에 대한 관심(즉, 할렘에 있는 따윈베익 싸워드 집합주택, 암스테르담에 있는 바테르 흐라프스메이어 집합주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정치적 충돌의 요인이 되었으며 4층 규모의 집합주택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보면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상 작품과 동시에 게재된 로흐헴의 논문은 전원도시의 양상에 매료되었을 뿐 아니라 르 꼬르뷔제에 대해 특별히 높은 평가도 반영되고 있었다.<sup>39)</sup>

르 꼬르뷔제는 이 설계경기가 개최되기 1년 전 인 1932년 네덜란드에서 강연한 바 있다.

“상호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치된 초고층집합주택 단지의 건설을 통하여 자연미에 대한 애정이 형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생략) 고층집합주택 단지는 거주자에게 보다 넓은 공간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주동 사이에 배려되는 보다 크고 넓은 공간을 집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40)</sup>

베르호플더 집합주택은 특히 베르스테이흐와 브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의 계획안에서 베르호플더 집합주택의 형식을 여러 곳에서 차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베르스테이흐 계획안(그림 21)은 주동 간격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을 받았고 브룩의 계획안은 고층집합주택을 적용한 계획안 중 유일하게 상(賞)을 받았다.(그림 22)

브룩의 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물의 높이를 혼합하여 사용한 점인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적인 적용 방법이다. 이 두 사람은 고층집합주택의 대규모 계획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37) Ibid., p.47.  
38) F. Ottenof, ed., Goedkooppe Arbeiderswoningen (Rotterdam, 1936), p.110.  
39) J.B. van Loghem, Le Corbusier in Holland, De 8 en Opbouw, 3, No.1(1932), pp.13~15.  
40) J.B. van Loghem, Nabetachting Goedkooppe Arbeiderswoningen, pp.29~30.

주동 형태를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설계경기에서는 4층의 일자형 배치의 주거형태를 지향하는 경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이 설계경기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된 재정적인 장점을 실제 계상할 수는 없었다. 건설비용 특히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중앙설비의 높은 경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일반 노동자용 주거를 위한 고층집합주택 건설은 진척되지 않았다.”<sup>41)</sup>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최근에 지어진 베르호플더 집합주택의 현상에 납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고층건축위원회 활동이 충분치 못하여 설계경기 심사소위원회는 노동자 가족이 고층주택에 살아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두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갖는 고층집합주택과 엘리베이터의 설치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한 평가기준은 도로건설비용과 주택의 범위를 고찰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는 고층집합주택이 갤러리 접근방법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주택건설은 때때로 이런 접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sup>42)</sup>

### 전쟁 이전의 최종 단계에서의 거부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와 달리 '저가·고품질 주택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국립주택위원회'와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34년 말에서 1936년 봄에 걸친 위원회의 결론은 이 위원회에 앞서 고층건축위원회라든가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

계경기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노동자용 주택에서 4층 이상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4층 이상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계단을 이용한 오르내림과 계단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려는 형태는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주 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이다.”<sup>43)</sup>

새로운 주거모델에 대한 보수집단의 반응은 전원도시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통적 저층주택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해석은 끼뜨훅 집합주택의 성공과 베르호플더 집합주택의 허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불행인지는 몰라도 이런 계획들은 실험주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택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회적 기회도 결코 살리지 못하였다.<sup>44)</sup>

### 결론

1940년까지, 1923년에 멘델존이 염려했던 비유적 붕괴(metaphorical destruction), 즉 로테르담이 얼어붙은 일도, 암스테르담이 불타버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까지 언급한 것과 같이 정열적인 표현주의와 부드럽지만 확고한 합리주의의 접근은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에서 집합주택 건설에 특별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로테르담에서 소위 표현주의 건축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전의 원동력이 된 집합주택의 합리적 전통

은 집합주택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신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전원도시운동에 대한 다양하고 공식적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한 암스테르담파의 이국적 정서와 더불어 합리적 실험이 공존하고 있었다. 표현주의에 대한 영향의 퇴보는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도록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은 1934년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과 1937년 네덜란드 최초의 일자형 주동배치의 건설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멘델존이 기대한 암스테르담파의 '환상성(vision)'과 로테르담파의 '분석적 객관성(analytic objectivity)' 간의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듀독과 스탈의 작품에서 표현주의와 합리주의적 주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인지는 몰라도 이런 통합화의 성격은 당시 주요 관심사였던 집합주택의 문제와는 관련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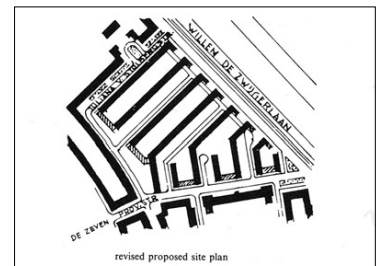


그림 24. 란트라스트 집합주택 변경 배치계획안, 1935~38.



그림 25. 도로에서 본 란트라스트 집합주택의 전경

41) 심사보고서 Goedkooppe Arbeiderswoningen, pp.34~35.

42)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 심사소위원회 Rapport van het onderzoek van de plannen voor hoogen bouw, 미간행보고서(Amsterdam, 1937), p.3.

43) Rapport van de Commissie voor de Goedkooppe woning (Amsterdam, 1936), p.5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집합주택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전통은 서로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불행하게도 대립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전통은 건축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통합화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논하여 온 것과 같이 표현주의자가 확산하고 있는 몇 가지 점에서 합리주의적 전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베를라헤를 통하여 생겨난 것이고, 그 영향은 네덜란드 집합주택의 모든 면에 걸쳐 있다. 베를라헤 및 그 이후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은 노동자용 주택이 문화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초기의 표현주의자들은 집합주택에서 추구한 도상학적 상징주의(iconographic symbolism)에서 탈피하지



그림 26.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의 평면도  
①거실, ②침실, ③부엌, ④면실, ⑤코너, ⑥화장실



그림 27.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의 내부전경

못하였다. 이것은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화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는 다르다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과정을 확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합리주의자들은 집합주택이 단지 사회의 반영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민주주의 영향과 주거환경에 있어서 위생에 대한 신념은 균질한 주거환경(homogeneous housing environment)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공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잠재성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아흐네타 공원단지로부터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에 이르기까지 주거 전문가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비전이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점점 주거환경을 제어하려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19세기 폐쇄형 집합주택에서 볼 수 있는 내부공간의 무질서로부터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규제와 통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1900년에서 1940년까지 집합주택과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란프러스트 집합주택(그림 23~27)은 건축가가 대규모화하는 집합주택 단지를 취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의 사례로 근대기 40년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 기간에 다양성과 대립성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존재했으며, 이를 통합화하려는 기대 심리가 지나치게 컸다고 할 수 있다. 신즉물주의 건축가가 실험한 집합주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간을 전체로서의 환경, 특히 인간의 선택으로서의 환경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접근방법

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암스테르담-로테르담의 이중성에 대한 멘델존의 인식은 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전개된 폴레믹(polemics)하고 변증법적인 성격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대립에 대한 관심-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1900년부터 1917년 사이에 전개된 주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은폐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기간에 비평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공중위생의 필요성, 노동자 계층의 권위와 자존심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다. 또한 주택조합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상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의 성장, 노동자용 주택에서 공유정원의 설치, 그리고 노동자용 주택의 위상에 대한 표현주의 건축가들의 노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유연적인 주거공간은 그 기원이 1920년대 급진적인 폴레믹 이전에 있지만 양호한 일조, 위생, 개방성, 그리고 유연한 공간이라는 목적이 확립된 이후 일관성 있게 표현된 목표는 끝까지 투쟁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그 목표가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암스테르담파와 로테르담파의 이중성에 대한 멘델존의 지적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었을 수 있다.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논한 베를라헤의 공리(公理)와 함께 네덜란드 집합주택이 갖는 높은 가치성은 통합적 문화 내부의 다양한 조류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

44) 유사점이 1924년 Watergraafsmeer에서의 혁신에 대한 경의로 이루어졌다. P.K.A. Pennink과 W.J. Bruyn, Het Bentondorp, p.7